▌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1호(2008.06.30) : 87 124

새로운 시장 그리고 농민공동체 운동: 멕시코 UCIRI를 중심으로*

김 세 건**
Kim, Se-Gun

행복이란 결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란 결코 바겐세일 속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모두 함께 만드는 것이다.(반 데어 호프-로전 2004, 43)

<Abstract>

El Mercado Nuevo y el Movimiento de la Comunidad Campesina en México : Con el caso de la UCIRI.

Cuanto más la globalización neoliberal se ha acelerado en México, tanto más se han aumentado los movimientos sociales contra la globalización neoliberal. Estos básicamente se difundieron por los movimientos campesinos. Por una parte estos se manifestan en forma del movimiento por la fuerza de armas como la rebelión zapatista en el Estado de Chiapas. Por otra parte estos se representan en forma del movimiento de la reforma de la estructura económica como la UCIRI (Unión de Comunidades Indígenas de la Región de Istmo) que es una unión de los productores cafetales en

* 이 연구는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과제로 총 2년차 과제 중 1차년도 연구결과임(KRF-2006-323-B00024).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문화인류학과
E-mail: amorsg@kangwon.ac.kr

el Estado de Oaxaca. Este trabajo se intende investigar el movimiento social de los campesinos mexicanos para superar la globalización neolibral con la UCIRI. UCIRI es un producto del comercio justo que cambate contra la estructura de explotación de las empresas transnacionales que fortalecen su poder con la globalización neoliberal. UCIRI seleccionó la manera de que paulatinamente reforma la estructura económica injusto para defender a sí mismo en lugar de las maneras militares que han dominado en el campo campesino de México. Los campeisnos de la UCIRI ha aprendido una verdad que las resistancias politicas y por la fuerza militar generaban más opresiones, sacrificios y desesperaciones.

UCIRI ha creado un sistema nuevo como un mercado fuera del mercado con la producción orgánica de café y de plantas basicas como maíz, cuidando su tierra que es la única herencia que tienen para sus hijos. Su movimiento no se quedó en el movimiento de la cooperación de los productores. UCIRI se está avanzando hacia un movimiento para la sociedad alternativa en la que intenta repartir y poseer comunalmente los recursos naturales y el poder político contra la sociedad dominada por los capitalistas y los hombres de poder. Es decir UCIRI se va formando un sociedad de la democracia participante local y un mundo en que convive las varias diferencias socioculturales y defiende su dignidad. Este camino será muy difícil. Pero, UCIRI está caminando se hace el camino como su mote.

[Key Words: UCIRI/ Globalización Neolibral/ Comercio Justo/ Democracia Participante Local/ Sociedad Alternativa]

[: / / / /]

Ⅰ. 들어가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함께 탄생한 라틴아메리카는 세계화의 시작점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재적 실험장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 특히 제 3세계에서의 팽창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만든 미국의 세계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제 3세계에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장 먼저 떠맡게 된 곳이 중남미이다"(강상구 2006,134). 동아시아나 다른 제 3세계가 아닌 중남미가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를 가장 먼저 떠맡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중남미 자체의 경제성장 모델이 야기한 모순이 세계경제위기로부터 발생한 요인과 특수한 형태로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70~80년대 세계자본주의에 위기가 닥치면서, 1980년대 내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제 3세계에서 신자유주의적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 실험의 결과는 1990년대 초에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1]로 귀결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이 1970년대 조성한 국제정치적 환경과 금융세계화 속에서 누적되기 시작한 막대한 양의 대외채무로 말미암아 지불유예를 선언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위기를 '상환불능의 위기'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제시했다. 1980년대 '잃어버린 십년(the lost decade)'을 거치면서 '외채상환의 의무'를 짊어진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수용하는 것만이 구조적으로 강요된 유일한 선택이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시장자유화 및 탈(脫)규제의

1) 워싱턴 컨센서스는 제 3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된 일종의 정치 전략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제 3세계 국가들이 어떤 내용의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되는 가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정부예산축소,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인하,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허용 등이 대체적인 내용이다.

원칙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탈(脫)인플레정책, 즉, 신자유주의정책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정책이 발전주의, 즉, 세팔주의(cepalismo[2])를 폐기했음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시각은 중남미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위기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육성과 포플리즘에 기반한 뿌리 깊은 국가개입주의 전통, 즉, 민중주의 정권의 과도한 국가개입과 국가부문의 지나친 성장에서 찾았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국민경제의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를 제시했다(이은정 2006,162 참조). 즉, 신자유주의 시장개혁 물결은 라틴아메리카 제 국가를 지탱해 온 수입대체산업의 대들보를 해체하였고, 코프라티즘과 같은 포플리즘의 주요 유산을 해체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지원으로 유지되던 허약한 사적부분을 기업화하여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을 삼았다. 결국 국가발전모델에서 이러한 기초적 변화는 1930~40년대 수입대체산업과 포플리즘처럼 경제, 정치 및 사회문화에서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Weyland 2004, 143-4 참조).

멕시코는 칠레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와 통합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82년 등장한 마드리드(De la Madrid) 정부(1982~1988)는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로 초래된 정치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부과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 이래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살리나스(Carlos Salinas)정부(1988~1994)와 세디요(Ernesto Zedillo)정부

2) 세팔주의는 구조개혁론의 전통에 선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의 발전론적 경제사상으로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지적 전통을 이루었다. 세팔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자립,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에 의한 내생적 공업화, 역내 경제통합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1960-70년대 쿠테타를 통해 민중주의(populism)정권을 퇴진시키고 들어선 군부정권에 의해 약화되고 외채의존적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으로 대체되었다(이은정 2006, 175).

(1994~2000)를 거쳐 폭스(Vincente Fox) 정부(2000~2006)에 이르기까지 정부정책의 기본 기조가 되었다.

특히 살리나스 정부는 혁명헌법 아래서 만들어진 코프라티즘적 노사관계가 생산효율성에 반한다고 비판하는 등 멕시코 민족주의를 폄하하고, 대신 세계화와 시장논리야말로 멕시코의 풍요로운 경제적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신화를 퍼뜨린다. 이의 대표적인 정책이 전국연대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Solidaridad)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 구조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하기 위해 사회의 저변계층들을 1989-1994년의 국가발전계획에 포함하려는 정치적 도구였다. 농민, 원주민, 빈민대중의 생활조건을 개선, 균등한 지역개발의 장려, 주민들의 생산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건 개선, 지역정치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 등과 같은 활동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김용민 2006,17). 이를 통해 살리나스의 통치력과 정부의 헤게모니 강화가 이루어졌다. 살리나스 정부는 1993년 말까지 심각한 경제위기나 헤게모니의 위기를 겪지 않고 외국인 투자의 확대, 무역자유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치아빠스 반란, 꼴로시오(Luis Colosio)제도혁명당 대통령후보 암살 등 집권당의 헤게모니 위기를 드러내고, 투기성 외국인 단기투자가들이 자본을 회수하면서 외환위기에 빠졌다. 1994년 12월 멕시코의 채권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페소화의 가치가 폭락하였다(이은정 2006,163)[3].

나아가 위기는 경제영역에만 그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의 원리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

3) 이 충격은 곧바로 아르헨티나, 브라질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를 데낄라효과(tequila effect)라고 한다.

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자체가 사회적 불평등, 특권계급, 불균형 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 사회구조는 신자유주의 성장 속에서 또 성장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이 단순히 불평등을 양산한다기보다는 성장 자체가 불평등에 의존하고 있다(보드리야르 2002,60)고 말할 수 있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체들의 사회경제적 관계는 불평등한 계층과 계급관계에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수의 부자는 정치,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소외되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유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간계층은 점차 감소하고 빈곤층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평가되어 온 멕시코는 대기업부문과 다국적 기업의 급격하고도 비대칭적인 성장, 중간계층의 몰락, 만성적 실업과 빈곤층의 점진적 증가, 경제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1990년대를 일컫는 '더 나빠진 10년'은 신자유주의적 진단과 처방이 실패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여파가 얼마나 빠르게 국민경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지를 드러내주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개혁은 경제안정, 사회평등, 사회복지, 교육, 민주주의 향상 등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다(Huber and Solt 2004).

멕시코는 '근대화'라는 명목 아래 성장제일주의에 동원되었던 사회 성원의 대다수가 이제 다시 '고삐 풀린' 자본의 자유를 위해 새로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런 현상은 농촌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멕시코 농촌은 1950~60년대에는 '농업의 기적'이라고 일컬을 만큼 좋은

시절을 구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의 1980년대에 들어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멕시코 농촌도 급격히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부터 발효된 NAFTA에 의해 멕시코 농업은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NAFTA는 "경쟁력이 약한 곡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금지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량 생산되는 곡물이 멕시코에 수입되게 하기 위해 멕시코 시장을 개방하였다. 시장가격 이하의 미국의 값싼 곡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멕시코 곡물가격은 1년도 못돼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 반면 곡물의 소매가는 상승했다. 미국의 기업농은 사상 초유의 이윤을 기록한 반면에, 수백만의 멕시코 농민은 토지를 잃었다. 에히도(ejido)법이 폐지되면서 토지 소유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데다, NAFTA가 들어오면서 토지가 있어도 수지가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수백 가지 품종의 옥수수가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에 강력한 화학비료로 재배된 미국의 광활한 대초원농장의 잡종옥수수 몇 가지가 들어왔다"(킹스노스 2004,30 참조). 이처럼 NAFTA를 위한 헌법 27조 폐기, 옥수수 수입 제한 및 커피가격 보조금 철폐 등은 옥수수에 바탕을 둔 멕시코 농업을 황폐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였다. 특히 오늘날 미국으로의 계절농업이민 및 불법이민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이주 농민들은 멕시코 농촌의 오늘을 지탱하는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멕시코 인구의 1/3인 약 3천만 명이 농촌에 살고 있으며, 농민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도 활성화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멕시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저항의 단초는 농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력들은 한편으로 멕시코 남부 치아빠스(Chiapas)사빠띠스따 반

란처럼 무장봉기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사빠띠스따 봉기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멕시코, 라틴아메리카 나아가 세계에서 저항운동의 불길을 되살리며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향점을 제공하였다.[4] 다른 한편으로 생산조합 형성을 통한 생산 및 유통 여건의 개선, 즉 경제구조개혁 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아하까(Oaxaca) 커피생산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UCIRI(La Unión de Comunidades Indígenas de la Región de Istmo, 이스트모지역의 원주민공동체조합, 이하 UCIRI)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멕시코 농촌은, 한편으로 근대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며 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의 무대이자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곳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멕시코 농촌의 사회운동을 UCIRI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4) 브라질의 대표적인 반세계화의 운동도 무토지농촌노동자에 의해 촉발되었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지고 농민들의 사회운동은 "1960년대 운동들의 단순한 재연이 아니다. 농민운동의 주체들은 도시영역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단순한 농업경작자가 아니며, 정치적으로는 정당들로부터 상당부분 자율적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흡수된 많은 국가들의 중도좌파들이 방기된 정치적 공간을 채워내고 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종족적(ethnic), 성적, 생태적 관심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 라틴아메리카 여러 사회에서 보이듯이 농촌 운동은 소수종족, 언어, 문화 등의 문제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농민운동들은 모두 라틴아메리카의 지역권적(regional) 조직인 라틴아메리카농민조직회의(Congreso Latinoamericano de Organizaciones del Campo, CLOC)에 결합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더욱더, 비아깜뻬시노(Via Campesino)라고 불리는 국제적 기구에 활발히 참여하여 농촌투쟁들과 관련된 생각들과 경험들을 논의하고 있다"(페트라스 1998, 143-146 참조).

Ⅱ. 연구지 개관

본 연구의 대상지인 UCIRI는 멕시코 남동부에 위치한 오아하까(Oaxaca)주의 남부후아레스산악지역에 위치한 후치딴(Juchitán), 떼우안떼빽(Teuantepec), 야우떼빽(Yautepec), 사까떼빽(Zacatepec) 등의 4개 군(Distritos)에 속한 마을공동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곳 마을들은 대부분 1500-2000m의 높은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서로 고립되어 있는 편이다.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UCIRI의 본부는 평지에서 산악지대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한 라치비사(Lachivisa)에 있다. 라치비사에서 길은 산악지역 마을별로 여러 방향으로 나뉜다. 라치비사의 UCIRI 본부에는 행정사무실뿐만 아니라 커피 선별장, 창고, 상점, 의료기관, 치과, 약초실험장 등이 있다. 인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익스떼빽(Ixtepec)으로, 이곳은 약 40-50년 전까지 만해도 철도 환승역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 상업이 매우 성하였다. 그러나 떼우안떼빽과 후치딴 간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후치딴에 그 영화를 다 빼앗겼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익스떼빽은 산악지역의 농민들이 평지로 나가는 가장 큰 도시이다. 익스떼빽에는 UCIRI의 연락사무실, 신용조합, 철물점, 의류공장, 커피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UCIRI의 본부가 위치한 라치비사는 익스떼빽에서 버스로 약 2시간, 라치비사에서 북쪽에 위치한 산티아고 라치기리(SantiagoLachiguiri)까지는 약 4시간이 걸린다. 교통편으로는 현재 UCIRI가 운영하는 버스가 하루에 한번 운영하고 있다. 익스테빽에서 아침 10시에 출발한 버스는 종점인 라치기리에서 오후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은 후 다음날 새벽 3시에 다시 익스테빽으로 돌아온다. 3년 전부터 도로포장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2007년 4월 20일) 라치비사 입구까지 도로포장이 완료되었다. 포장되기 전에는 길 상

태가 좋지 않아 비가 오면 산사태 등으로 차가 다닐 수가 없었다. 물론 지금도 라치비사를 넘어서면 길 사정은 좋지 않다. UCIRI 버스가 운영되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서 다녔는데, 라치기리에서 익스떼뻭까지는 2~3일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산악지대에 살면서 익스떼뻭까지 생필품을 사러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교통이 불편한 점을 이용하여 커피유통 꼬요떼들은 '비싼'(?) 생필품을 가지고 산악지대 마을로 가서 커피를 싼 값에 매입하였다. 지금은 UCIRI 버스 외에 화물차들을 버스처럼 이용하기도 하는데 시간은 불규칙하다.

오아하까 주는 인접한 치아빠스와 더불어 주 인구구성비 중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UCIRI가 위치한 떼우안떼뻭 지역은 사뽀떼꼬(Zapoteco족을 비롯한 미헤(mixe),촌탈(chontal),차티노(chatino) 등의 원주민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한다. 또한 이곳은 국가 원주민 탄압과 통합 정책에 대하여 원주민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곳이다. 특히 UCIRI의 핵심적인 구성원인 사뽀떼까 원주민은 오랫동안 오아하까 원주민 저항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사포떼까 원주민은 19세기 후반에 지역 엘리트와 국가자본의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부과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폭력적 반란과 저항을 하는 종족으로 규정되었다. 즉, 사뽀떼까 원주민이 주를 이루는 후치딴 사람들은 외부인의 눈에 야만인 또는 미개인으로 비쳐졌다(Rubin2004,111).그러나 멕시코 혁명이후, 사뽀떼까 원주민은 '멕시코'라는 국가 틀 속에 자신들을 위치시키며 외부인과 공존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변화는 혁명기간 동안 후치딴 사람들을 이끌었던 엘리오도로 차리스 장군(GeneralHeliodoroCharis)에 의해 지도되었다. 특히 엘리오도로 장군은 1930년에서 1950년에 이르는 동안에 이 지역의 까시께로 군림하며 멕시코 국가 또는 오아하까 정체성과는 차별화되는 해협(Istmo)의 사뽀떼까 원주민만의 정체성 형성을 통해 원주민들

의 이익과 정치, 경제적 자율성을 관철하였다(Rubin2004,112 참조). 사뽀떼까 원주민 정체성은 반란보다는 지역, 국가 경제와 공존하며 예술, 음악, 일상의례 등을 통해 실현되었고, 사뽀떼까 문화를 특징짓던 야만인이라는 수사도 점차 예술가, 음악가, 구연예술가 등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사뽀떼까 정체성은 혁명이후 진행된 멕시코국민주의의의 한 부분인 원주민정체성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Rubin 2004, 112).

1970년대부터 후치탄 지역의 원주민은, 특히 사뽀떼까 원주민은 COCEI(이스트머스 해협 노동자, 농민, 학생 연맹, Cooperaciónde Obreros Campesinosy Estudiantesde Istmos)를 구성하여 까시께와 제도혁명당의 일당지배에 기대어 부정부패를 일상적으로 용인하는 비효율적인 지역 정치경제 체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저항을 해왔다. 지난 15년 동안 연방·주 정부의 군사적 폭력과 탄압에도 굴건히 자신들의 사뽀떼까 문화와 프로젝트를 지켜왔던 COCEI는 1989년에 떼우안떼빽 무니시삐오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COCEI는 무니시삐오 행정 서비스의 확대, 사적영역과의 성공적인 협상, 정부기관과 학교에서의 사뽀떼꼬 언어사용, 농촌과 도시 노동자와 소토지소유자의 합법적 보호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Rubin2004,111). 이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사뽀떼까 원주민들을 비롯한 해협의 원주민들은 자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을 지켜왔고, 이것이 UCIRI의 현실적 토대가 되었다.

Ⅲ. UCIR의 형성과 새로운 시장 만들기

1. UCIR의 전사(前史)

UCIR는 1983년에 형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오아하까 남부 후아레스 산맥의 저지대 주변에 위치한 20개 마을의 커피 생산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마을은 해안으로부터 산악까지 널리 흩어져 있는데, 산악지역에는 사뽀떼까 원주민, 해안지역에는 미헤, 촌딸, 차띠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활동은 옥수수, 콩 등의 생계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커피는 약 100년 전에 도입되어, 해발 800~1600미터의 경작지에서 소규모로 재배되었다. 양질의 커피가 생산되었다고 하지만 판매가 쉽지 않았다. 1970년대까지도 지역 중심인 익스떼뻭까지 교통망이 불편하여 농민들은 운송용 동물을 데리고 마을까지 찾아오는 중간상인들, 이른바 꼬요떼(coyote)에게 커피를 헐값에 판매하였다. 12월 커피수확기가 되면 꼬요떼들은 커피를 매점하기 위해 설탕, 농기구, 시멘트 등을 동물에 싣고 마을에 들어왔다. 농민들은 꼬요떼들이 가져 온 값비싼 공산품과 커피를 교환하였다. 여기에서 커피가격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꼬요떼가 부르는 것이 가격이었다. 농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커피가 질이 낮고 상품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것을 팔아 푼돈 또는 생필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1970년대 후반에 멕시코커피조합(INMECAFE, Instituto Mexicano de Café)이 지역에 수매장을 개설하면서 커피생산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가격도 상승하였고, 비료 등 생산비에 대한 은행의 대출도 용이해졌다. 그러나 멕시코커피조합의 독점이 강화되고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커피 가격은 하향하여 이익은 커녕 금융 빚만 늘어갔다. 이곳 생산자들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커피생산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통망이 불안정하여 커피는 헐값에 팔리거나 때로는 팔리지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결국 "커피를 위해 그들의 온 인생을 바쳐 일하였지만, 커피는 결코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랜섬 2007,73 참조).

이에 일부 생산자들은 다양한 커피판매처를 개척하기 위해 멕시코시티, 베라끄루스(Veracruz[5]) 등지로 나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꼬요떼가 장악하고 있는 중간유통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런 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프란스 신부의 이야기(판 데어 호프/로전 2004,90-91)에서 잘 드러난다.

>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우리가 생산한 커피를 우리가 직접 항구 혹은 항구근처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그 방법은 원시적인 것 같아 보였지만 실행에 옮겼다. 먼저 우리는 3군데 마을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커피를 담을 자루를 구입했고 커피를 운반할 화물차를 임대했다. 우리는 생산한 커피를 베라끄루스 항구 가까이에 있는 협동조합으로 운송했다. 생산된 커피는 대개 협동조합에서 일부는 직접 유럽으로, 일부는 미국으로 배에 실려 나갔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곳 협동조합에서 kg당 95센트를 받고 커피를 팔 수 있었다. 이 금액은 산악 마을의 코요떼들이 우리에게 지불했던 25센트와 비교할 때 천문학적인 액수 같아 보였다. 따라서 중간 거래에 대략 68센트가 걸쳐 있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우리가 생산한 커피의 품질이 꽤 좋았다는 것이다. 매년 우리가 생산한 커피가 코요떼들이 오랫동안 말해 왔던 것처럼 품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다. 커피재배 농부 모두가 이 일에 열정적이었다. 필요 경비와 약간의 비상 기금을 제한 후 킬로그램당 83센트가 농부들에게 돌아갔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생산한 커피로 이만큼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다.

---

5) 베라끄루스는 멕시코만에 위치한 멕시코 제일 항구로 미국 동부 및 유럽과의 교역 중심지이다. 오아하까 산악지역에서 베라끄루스까지는 트럭으로 2~3일 정도 소요된다.

중간상인을 배제한 커피판매가 성공했다는 소문은 곧바로 산악지대로 퍼졌고, 다른 마을들도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1983년 커피 제 값 받기 차원에서 산타마리아 기에나가띠(SantaMaría Guienagati) 등 17개 마을이 참여하는 UCIRI가 조직되었다. 이는 꼬요떼, 까시께 등의 지역지배구조를 흔드는 일대 사건이었고, 지역 권력자들의 탄압도 거세졌다.

> 1985년과 1992년 사이에 많은 농민지도자들이 살인청부업자들에게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UCIRI 창립기념 파티 때 산길 뒤편에서 중기관총 사격을 받았던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집으로 출발했으나 파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 집에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잠을 자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관총 사격을 받아 2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그 당시에 우리들 중 37명이 죽었다. 여기에는 살해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피하려 도망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살해의 배후에 꼬요떼들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군인들도 이 사건에 한몫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된 원주민들의 협동조합에 민감했다. 따라서 군의 개입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군이 개입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반 데어 호프/로전 2004, 94-95).

UCIRI는 수많은 희생을 낸 지배세력의 탄압에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을 지켜냈다. 조합지도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희생을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대립을 피하고, 지역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는 불평등한 경제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권력구조 개혁만이 스스로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커피의 국내 판매를 넘어 국외 판매망을 개척하고자 노력하

였다.

2. 공정무역 "원조가 아닌 공정한 거래를!"

UCIRI 회원들은 소규모 커피생산자로 일부를 제외한 보통 1-3헥타르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각 가구에서 소량으로 생산되는 커피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였다. 즉, UCIRI의 탄생의 배경은 '시장의 부재'였다. 커피를 생산해도 팔 곳이 없었고, 시장이 있어도 이곳은 철저하게 독점자본의 지배를 받아 제값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윤은 고사하고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웠다. 즉, 가격은 권력이었다. 다국적 기업에 의해 지배된 시장은 시장이 아니었다.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착취만이 지속되었다. 브로델이 갈파했듯이 자본주의는 시장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시장에 대한 억압이었다. 자본주의는 반시장으로서의 독점으로, 이 독점을 통해서만 출현하였다. 시장 위에 있는 시장의 상부구조이다. 즉, 독점으로서의 자본주의는 국가를 매개로 해서만 형성되는데, 여기서 독점은 국내 독점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다. 강한 국가를 배경으로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그것이 시장경제의 상부구조인 것이다(백승욱, 2006).가장 대표적 환금작물인 커피 시장은 오래전부터 네슬레(Nestle)나 크래프트 제너럴 푸드(KraftGeneralFoods)와 같은 다국적 기업 또는 기관에 의해 독점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커피의 판매를 좌지우지하였다. 즉, 커피는 자본주의 시장에 의해 착취당하여, 정작 먹고 살기 위해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거대한 기업들은 수백억 달러의 이윤을 내고 있었다. 예로 "런던이나 토론토, 시드니나 뉴욕에서 팔리는 한 잔의 커피 가격을 따지면, (페루) 탐보파타 계곡에서 생산하는 약 50킬로그램의 커피 한 자루는 만 3천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 그러나 운이 좋다면 그레고리오(커

피생산자)와 그의 협동조합은 70달러를 받게 된다. 이것은 커피 값의 18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랜섬 2007,73). 결국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커피 시장과 같은 자본주의의 "시장은 원칙적으로 자급자족 경제의 닫힌 문을 열고 벽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해방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한 지역의 자족적인 경제생활을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심광현 2003,28 참조)이었던 것이다. 이는 오아하까 산악지대 농민들의 삶이 충분히 증명하고 남음이 있는데, 프란스 신부의 이야기(판 데어 호프/로전 2004,85)에서 잘 드러난다.

> 1980년 처음으로 산악 지역에 갔을 때 나는 커피재배 농부들의 가난과 그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그들의 절망과 마주쳤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비참했다. 그들은 집을 고칠 수단이나 돈이 없었다. 갈대로 엮은 지붕은 구멍이 나 있었고 벽에는 금이 가, 우기 때면 온 집안이 습기로 눅눅했다. 유아사망율도 매우 높았다. 병이 난 경우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1976년 커피재배 농부들은 흉작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은행 빚을 갚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처럼 힘든 시기에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커피로 돈을 벌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어떻게든 살아야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실패했다.

세계 커피시장에서 UCIRI 회원들이 생산하는 커피의 양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지만, UCIRI 농민들에게 커피는 자신의 생명과 삶의 질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판매처를 구하였다. 그리고 프란스 판 데어 호프 신부의 도움으로 네덜란드, 독일 등지의 소위 '대안 시장'(El Mercado Alternativo)운동을 벌이는 단체들과 직거래망을 형성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무역 커피의 대명사인 '막스 하벌라르(Max Havelaar)[6]'가 등장하였다. 막스 하벌라르

는 농민을 돕는 커피라는 명성을 가지고 다국적기업이 지배하고 있던 커피시장에 파고들었다. 막스 하벌라르의 성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정무역(fair trade)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7] 즉, UCIRI는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한 예로 꼽히는 공정무역운동의 태생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정무역으로 거래되는 커피도 세계 커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다. 실제로 UCIRI커피의 약 15-20%만이 공정무역을 통해 거래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기존의 커피시장을 통해 판매된다. 따라서 공정거래를 통한 수입은 농민들의 커피 연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공정거래가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UCIRI가 창출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회사인 막스 하벌라르는 프란스 반 데어 호프 신부와 니코 로전의 1985년 5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역 한 식당에서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좌파 성직자'인 프란스 신부(1939년 생)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칠레 산티아고의 빈민가에서 사목활동을 하다가 아옌데 대통령에 대한 쿠테타가 발생하자 멕시코로 망명하였다. 처음에는 멕시코시티에서 빈민가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다 1980년부터 원주민 농촌마을에서 '기초공동체운동'을 열성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멕시코 오아하까 떼우안떼뻭 대교구의 아르투로 로노 레예스(Arturo Rono Reyes) 대주교를 만나면서 오아하까의 산악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뽀떼꼬 원주민 등의 가난한 커피 농민들과 생활하게

---

6) 막스 하벌라르는 19세기 네덜란드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 이름이다. 그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였다.

7) 독일의 '트란스페어', 영국의 페어트레이드재단 등이 대표적인 공정무역업체이다. 국제공정무역단체연합(International Fair Trade Organization, IFAT)에 따르면 2007년 현재 70여개 국가, 300여개의 단체, 100만명의 생산자들이 공정무역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수진 2007b, 28).

되면서 그의 삶도 바뀌었다. 지금도 그는 커피원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그 노력의 산물이 UCIRI이다. 니코 로전은 1984년부터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종교간 개발기구인 참여연대(Solidaridad)에서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개발 협력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만남에서 프란스 신부는 공정무역의 단초를 현재(2007년 4월) UCIRI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사이아스 마르티네스(Isaías Martínez)의 언설에서 찾고 있다.

> 농촌지도자들 중 이사이아스 마르티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난문제에 대한 나의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사이아스의 생활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봐야 합니다. 이사이아스는 커피농사를 짓는 아주 평범한 농민으로 후아레스 산맥의 골 무너질 것 같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사포텍족이며 대대로 커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사이아스는 열심히 일하지만 연간 2백 달러 이상을 벌지 못합니다. 이는 매일 60센트도 되지 않는 돈으로 식구와 함께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사이아스는 지구상에서 빈곤의 한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2백만 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사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원조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가격으로 우리의 커피를 구입하기만 한다면 원조 없이도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이아스는 이러한 말로 오늘날의 개발 원조체계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 대안으로 경제체계가 정당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판 데어 호프/로전 2004, 10-11).

두 사람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난에 신음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델을 찾았고, 그 모델의 키워드는 '원조'가 아닌 '공정한 거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것이 공정무역운동의 시발점이 된다. 즉 UCIRI 농민들은 부유한 나라들의 원조경제모델을 강력하게

거부하였다. 원조경제모델에서는 자비심 베푸는 시혜자, 선진국과 불쌍하지만 감사해야 하는 수혜자, 비-선진국으로 나뉘고, 선진국은 선의로 베푸는 원조 선물로 서로의 불평한 착취관계를 은폐한다. 그런데 UCIRI 농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커피가 제 값을 받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품위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국적기업과 중간유통업자가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기존의 독점시장의 외부에 새로운 '시장경제'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공정무역이다. 공정무역은 거래이며 시장에서 작용한다. UCIRI의 커피재배 농부들은 '자유' 시장이라는 개념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오늘날 시장은 종종 경제 그 자체 및 자본주의와 동일시되어, 즉, 자본주의=경제=시장이라는 왜곡된 등식[8]이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시장, 경제, 자본주의는 각기 상이한 개념이며 그 내용 역시 차이가 있다. 오히려 시장경제는 투명한 영역이고, 이곳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개방이 된다. 교환이 일어나지만 그 교환은 등가교환이고 이윤은 축적되지 않는다. 대자본이 형성되지 않는 시장이고 축적이 이뤄지지 않는 시장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병폐는 시장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자본주의와 시장의 불행한 결합, 또는 시장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심광현 2003,24; 백승욱 2006참조). 공정거래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한다. 공정거래는 커피, 바나나, 의류와 같은 생산품의 국제 시장에 개입하며 세계화의 고유한 방법을 수행한다. 결국 UCIRI는 다국적기업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외부에 자신들이 생산한 커피, 바나나 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며 새로운 대안사회의 가능성

8) 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는 시장경제에 대한 분노로, 나아가 시장 자체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자본주의=경제=시장이라는 왜곡된 등식이 낳은 오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회주의=시장 없는 사회라는 등식이다.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와 비자본주의 경제로 구별되듯이, 시장 역시 자본주의 시장과 비자본주의 시장으로 구별되어야 한다(심광현 2003, 24).

을 실험하고 있다. 물론 거대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 외부에서 시장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과제이지만 말이다.

Ⅳ. 새로운 농촌공동체를 향하여

UCIRD는 세계 커피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단순한 커피 생산자 공동체를 넘어 대안 공동체를 지향하는 멕시코 농촌의 새로운 사회 운동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는 UCIRD가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넘어 권력 그리고 삶과 문화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UCIRD는 "차이들을 동일성(자본의 논리, 또는 중앙적 계획)으로 환원하는 근대적 배치를 대신하여 환원 불가능한 이질성들의 다원적 결합인 탈근대적 배치로의 전환에 대한 가이드"(심광현 2003,105 참조)라고 할 수 있다. UCIRD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친환경적 생산, 사회 간의 관계에서 전통의 복원과 '차이'의 권력관계 형성 등을 통해 멕시코 정부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지도되던 '근대적 배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배치를 시도하고 있다.

1. 친환경적 생산체계 형성

UCIRD는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세계 커피 시장에서 소규모 커피 생산자들이 자신들만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에 의한 커피 판매량은 미약하고, 무엇보다 제 3세계의 가난한 농부를 돕기 위해 마시는 '이념으로서의 커피'(박수진 2007b,28)로 만은 소비자를 흡입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념형의 커피가 아닌 맛있고 품질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제품으로서의 커피'(ibid.)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UCIRI는 조합을 형성한 1985년부터 제품으로서의 커피를 위해 유기농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커피생산 방식은 화학비료에 의존하였다. 즉, 한 그루의 커피나무라도 더 심기 위해 커피나무에 꼭 필요한 녹음수(綠陰樹) 역할을 하는 밭의 나무와 관목을 제거한다. 그리고 조밀하게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하면 1헥타르당 1만 그루의 커피나무를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학비료에 의존한 기존의 방식은 단기간 수확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토질의 저하로 약 7-8년 후면 커피생산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유기농법은 밭의 나무와 관목을 제거하지 않고 녹음수로 이용하고 커피과육, 약간의 석회석, 나뭇잎 그리고 닭과 소 등의 분비물 등으로 만든 퇴비 등을 사용한다. 따라서 1헥타르 당 심을 수 있는 커피나무 수는, UCIRI가 신설한 농업기술학교의 교사였던 루이스 마르티네스(Luis Martínez, 인터뷰 2007/4/20)에 따르면, 1,000-1,200개로, 초기 몇 년 간 커피생산량은 급속히 감소하여 거의 수입이 없다고 한다. 3~4년이 지난 후에야 기존의 생산량과 비슷한 1헥타르당 평균 6뀐딸(quintal,1quintal=57kg)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UCIRI 커피의 약 30%가 유기농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커피나무를 하나라도 더 심는 방법처럼 언제나 모든 것을 더 확장하여 손쉽게 더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기존농법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UCIRI는 유기농법을 조금씩 늘려가며, '유기농커피 UCIRI'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유기농커피생산조합으로써 자부심과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다. 즉, "UCIRI의 생산물은 사회적 잉여가치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잉여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들이 생산하는 커피는 최고의

품질로 자신 있게 책임질 수 있는 맛좋은 커피이다. 우리는 이 커피를 공정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판매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불쌍한 농부들이 아니다. 우리는 친환경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커피를 재배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산한 커피를 판매할 시장을 찾고 있는 떳떳한 생산자들이다"(반 데어 호프/로전 2004,53-54).

무엇보다 유기농법은 더 높은 가격과 안정된 시장 외에 친환경적이고 자급적 생산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크다. 커피가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완전하게 호전시켜주지 못한다. 게다가 공정거래가 안정적 시장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특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커피 생산에 말미암은 공급과잉으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계커피시장의 가격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UCIR는 커피생산에만 전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일의 잼 생산, 의류 생산 등 다양한 수입원을 창출하고자 한다. 농민측면에서도 환금작물 커피생산 외에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생계작물, 즉, 옥수수, 콩 등의 경작 및 가축사육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농부들은 더 많은 옥수수를 재배하고, 이 옥수수는 매일 매일의 주식인 또르띠야의 원료가 되고 닭과 돼지의 사료가 되기도 한다. 이들의 부산물은 유기농비료가 된다. 그리고 유기농 커피 밭에는 과일나무 등을 심어 커피에게 그늘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과일은 UCIR의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개발되어 커피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유기농으로의 전환은 재배방식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기존방식과는 달리 '어머니 대지' 땅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 나아가 후손들이 생존할 수 생산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며 희소성의 논리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시장 경제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살림살이로서의 실체적 경제(Karl Polanyi)로 전환하며 특히 신자유주의가 유발하고 있는 전통적, 사회문화적 가치의 해체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2. 새로운 권력 그리고 조직

UCIRI가 생산자 조직을 넘어 멕시코 농촌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은 이들이 새로운 권력관계의 형성을 통해 대안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UCIRI는 처음 5개 무니시삐오(municipio) 17개 공동체의 약 1,200명으로 시작하여, 현재에는 20개 무니시삐오 56개 공동체의 3,600명이 참여하고 있다(이사이아스와 인터뷰, 2007/4/20). 기본적으로 커피생산자와 농민만이 회원이 될 수 있다. 명예롭게(honestamente)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대규모 유통업자, 즉, 꼬요떼들은 어떤 경우라도 가입할 수 없다. UCIRI의 회원이 되면서 사람들은 타인의 노동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대중선서를 한다. UCRI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농민들을 착취하는 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회원이 중심이 되어 참여민주주의 나아가 지역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UCIRI는 다음과 같이 조직된다. 먼저 집행위원회(el Consejo de Administración)와 감독위원회(el Consejo de Vigilancia)가 구성되어 UCIRI의 전반 행정을 실행하고 감독한다. 집행위원회는 대표를 비롯하여 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실무를 담당한다. 집행위원회 활동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에는 3명의 상임위원과 각 마을들의 대의원(delegado들)이 참여한다. 두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마을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3년 동안 일을 하고 교체된다. 이를 통해 모든 회원들이 봉사의 부담을 나누어

갖고 나아가 행정경험을 쌓아 한 두 사람이 마을조합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UCIRI의 최고의결기관은 '대의원총회'(asamblea general)이다. 대의원은 56개 공동체 중 11개 공동체에서 선출된 44명의 대의원이 참여한다. 11개 공동체외 45개 공동체에서도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들도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지만 이들은 의결권이 없다. 이는 11개 공동체만이 법적으로 UCIRI의 소속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점은 다음 절에서 상술한다. 대의원들은 마을조합과 본부를 연결하는 중개자로 총회에 참석하여 마을조합의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본부의 결정사항 및 의견 등을 마을조합에 전달한다. 대의원총회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UCIRI가 실행하고 있는 교육(Centro de Educación), 버스운송조합(Transporte UPZMI SCL), 신용조합(사뽀떼까 원주민의 희망(Esperanza Indígena Zapoteca)등 사업의 위원회는 매우 중요하다. 이 외도 건강(Salud), 유기농(Cultivo orgánico), 여성(Proyecto de las Mujeres)등의 위원회가 있다.

마을조합수준에서는 현장위원회(Mesa Directiva)및 감독위원회 지부가 구성되어 있다. UCIRI의 회원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동토지에 기초한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을은 UCIRI의 가장 중요한 하위단위이다. 물론 마을공동체 전체 주민이 UCIRI의 회원은 아니다. 마을에는 UCIRI가 아닌 CEPCO(Corporación Estatal de Productores de Café de Oaxaca 오아하까 커피생산자 주연합) 등의 다른 조합에 소속된 커피생산자가 있다. 마을에는 여러 종류의 커피생산자 조합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UCIRI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단위에서 생산자조합을 형성하고, 이 마을조합이 UCIRI에 가입할 때 각 개인은 UCIRI 회원이 될 수 있다. 결국 UCIRI의 회원은 마을공동체 단위의 조합으로 모든 조합의 일은 마을단위

로 해서 이루어진다. 마을단위 위원들은 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1~2년 동안 봉사를 한다. 지역 대의원들과 대표 및 회원들은 매달 29일과 30일에 모여 일상모임(AsambleaOrdinaria)을 가지며 공부를 한다. 대의원들은 대의원 총회에서 다루어진 상황을 '빠소스'(Pasos)라고 부르는 회보(會報)로 정리하여 마을조직에 제출하고 마을 조직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토론한다. 여기에서 토론되는 것은 UCIRI가 처한 생산,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UCIRI가 나아가고 있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토론을 통해 공동체성을 획득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모든 회원들은 현장위원회, 일상모임, 총회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불참해서는 안 된다. 불참한 경우에는 1일 부역(un día tequio) 또는 조직이 결정한 벌을 받게 된다. UCIRI는 통제와 압제의 사회구조에서 참여를 지향하는 새로운 권력구조와 다양한 원주민들의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를 창출하고자 한다.

3. 삶의 질의 향상과 새로운 공동체

UCIRI가 대안운동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를 빌미로 유보(留保)될 수 없는 문화적 권리, 즉,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문화적 권리(심광현 2003,232~233참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문화적 권리가 자신의 조직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UCIRI의 내규 5조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는 단지 우리들의 생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행복과 자유는 결코 살 수 없고 또한 팔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건강, 집, 창고, 공동기금, 학교, 가족, 우리들의 언어, 마을의 관습과 축제는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며,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상적 공간, 사회, 문화 및

전통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CIRI는 전통문화 및 지식체계를 복원하고자 한다. 옥수수, 콩, 과수 등 자연친화적인 전통 경작방식뿐만 아니라 약초, 의례, 민속, 풍속 등을 복원하고 보존하려고 한다. 예로 라치비사의 UCIRI 본부에는 약초를 만드는 실험실이 있다. 이곳에서 산악지대에 많은 약초의 전통적 지식을 보존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을 만든다. 산악지대에는 의료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도 구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간단한 병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한다. 따라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 농사를 접고 도시로 이주하기도 한다. 또한 UCIRI는 산악지대의 열악한 교통사정을 극복하기 버스운송사업, 생필품 상점 설치, 신용협동조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UCIRI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본부에 샌들, 장화, 설탕, 비누 등을 생필품을 취급하는 대형 상점을 열었다. 그리고 마을 조합에도 지점을 열어 생필품을 싼값에 공급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꼬요떼들은 불편한 교통사정을 이용하여 생필품 공급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턱없이 높은 가격을 매겨 폭리를 취하였지만, 주민들은 별 도리 없이 비싼 값에 생필품을 사야 했다. 따라서 생필품 상점은 회원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넘어 꼬요떼 중심의 권력구조를 깨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 UCIRI는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원주민대학(Universidad Indígena)과 같은 교육기관을 건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전 단계로 UCIRI는 1986년 산호세(San José)에 농민교육센터(Centro de Educación Campesina)를 열었다. 가난으로 인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 특히 농업기술을 가르쳐 UCIRI 나아가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곳에서는 유기농 커피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전통적 생계작물인 옥수수, 과수, 채

소 재배 및 가축(닭, 돼지, 소)사육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또한 종족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마을공동체간 화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관계망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곳에는 매년 15~25명 정도의 학생이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프란스 신부를 만나 1996년부터 이곳에서 농업기술을 가르쳤던 루이스 마르띠네스(인터뷰 2007/4/20)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동안 약 250명의 학생이 배출되었다. 그 가운데 절반은 오아하까, 멕시코시티 등의 도시로 이주하였거나 미국에 가서 일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공동체에 남아서 살고 있다. 이 가운데 반 정도가 커피생산을 하며 UCIRI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무니시삐오 등의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농업교육센터는 UCIRI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재생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이곳에서 함께 교육을 받으며 자란 이들은 마을간, 종족간 갈등을 넘어서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UCIRI의 활동과 성공은 지역사회에만 제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원주민·농민들이 연대를 통해 새롭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로 떼우안떼빽 산호세에 본부가 있는 CCC (Comunidades Campesinas de Camino, 길농민공동체)는 2000년대 초반에 레오(Leo)신부의 주도하에 조직되었다. CCC는 UCIRI와 유사한 농민조합으로 농산품가공생산, 신용조합, 공동축산 등을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은 이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유기농 참깨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인 수녀들과 함께 참기름, 과자 등을 만들어 한국교민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기도 하다(레오신부와 인터뷰 2007/4/21).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부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형성된 이들 조합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원주민, 농민들의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다.

V. UCIR의 문제와 위기?

1. 땅 그리고 종족문제

UCIRI가 주로 활동하는 오아하까 후아레스 산맥은 깊은 산간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다른 계곡에 위치한 이웃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높은 고개를 넘거나 UCIRI 본부가 있는 라치비사까지 내려간 후 다른 마을로 이동해야할 만큼 마을들은 서로 고립되어 있다. 게다가 많은 마을들은 종족, 언어, 문화가 상이하여 서로 간에 접촉이 별로 없었다. 심지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였다. 특히 꼬요떼 등 중간상인 및 지역까시께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UCIRI 설립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 점은 프란스 신부의 이야기(반 데어 호프/로전 2004,96)에서 잘 드러난다.

> 1987년 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UCIRI가 농업학교를 열었던 산 호세 마을로 세 명의 남동생들과 함께 가는 도중이었다. 산호세에 가기 위해서는 구이고벨라가 마을을 지나야만 했다. 구이고벨라가 마을은 UCIRI 회원이 아니었다. 이 마을은 몇 년 전부터 꼬요떼였던 돈 많고 권위적인 촌장이 이끌고 있었다. 구이고벨라가 마을을 우회해서 갈 수는 없었다. 이 마을을 통과하는 길이 산호세에 가는 유일한 통로였다. UCIRI에서 하는 일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편에 속해 있었던 촌장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산 호세로 가는 모든 교통을 상당기간 차단했다. 촌장은 두 자루의 총을 메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느 누구도 허락 없이 사람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산 호세에 있는 우리 학교는

상당기간동안 식량보급이 되지 않아 식량난이 일어났다.

이 어려움은 이후 구아벨라가 마을의 커피생산자들이 조합을 형성하여 UCIRI에 참여하게 되면서 해결되었다. 구아벨라가 마을의 경우와 같은 꼬요떼 또는 까시께 등의 개입에 의한 UCIRI와 마을공동체간의 갈등은 점차 UCIRI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정정도 해소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톨릭교회의 기초공동체운동이 마을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단초를 마련하였다. 사실 UCIRI는 1983년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지만, 그 기원은 1976년경으로 올라간다. UCIRI의 소속 공동체인 산타마리아 기네가티(SantaMaría Guinegati)의 로베르또(Roberto)신부는 부임하면서 마을의 젊은이를 중심으로 기초공동체모임을 조직하였다. 이 모임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문제를 자신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가톨릭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점을 마을수준을 넘어 국가적 수준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이런 교감이 후에 UCIRI를 조직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간의 반목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마을공동체를 회원으로 하는 UCIRI가 자율적 조합과 나아가 자치적 원주민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 지난 세월동안 반목해 온 종족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멕시코 근대사가 해결하지 못한 토지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농촌에서 토지는 단순히 경제활동 대상을 넘어 권력과 사회문화의 토대였다. 따라서 항상 토지문제는 정치행위의 핵심에 자리매김되었다. 사빠따 농민군의 '땅과 자유'(Tierray Libertad)라는 외침이 1910년 발발한 멕시코혁명의 핵심 상징이라는 점도 이를 잘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오아하까 산악지대에서도 토지문제는 가장 중요한 종족갈등의 핵심이

다. 토지경계문제로 각 부족들은 반목했고 서로 얼굴도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토지문제는 같은 종족 간에도 벌어졌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UCIRI의 45개 공동체는 대의원총회에서 법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토지문제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토지는 개인소유라기보다는 마을공동체소유로, 토지문제는 곧 공동체간의 문제이다. 예로 UCIRI의 핵심공동체이기도 한 라치기리(사뽀텍 원주민)는 북으로는 꼬아뜰란(Coatlán,미세스원주민), 서로는 게베아(Guevea,사뽀떽 원주민), 동쪽으로는 기에가네티(사뽀떽원주민), 남쪽으로는 할라빠(Jalapa,메스띠소 혼혈인)와 경계를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라치기리의 영토는 다른 공동체와의 경계가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공동체의 경계가 항상 이웃마을과의 합의하에 설정되기보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공동체가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각 마을은 자기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토지서류를 가지고 있다. 사실 불명확한 토지경계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의 공동체소유의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멕시코 농촌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각 공동체는 자신들의 서류에 기초하여 토지소유를 주장한다. 이 토지문제는 종족문제로 비화되어 수많은 희생을 낳기도 한다. 그렇지만 토지문제는 종족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때로는 멕시코 지배구조 자체를 흔드는 정치문제이기도 하다. 토지 소유와 사용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공동체의 정치적 자율성은 항상 허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예로 1996년 정부와 치아빠스 사빠따민족해방군(EZLN)간에 맺어진 산안드레스협정은 멕시코에서 원주민 마을이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를 잘 보여준다. 멕시코 정부는 산안드레스협정을 기초로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여기에서 EZLN은 “멕시코 원주

민에게 멕시코에 소속된 자치권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관습과 전통에 기초한 정치적·사회적 조직을 선택할 권리, 토지와 자원을 다스릴 권리, 마을 단위의 생활양식을 조직할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권리,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Cortés)가 이 땅을 처음 밟은 이래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권리를 약속 받은 셈이었다. 의회는 2001년 7월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수정조항이 너무 많아 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사빠띠스따는(그리고 모든 멕시코 원주민단체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며 통과된 법안을 거부했다. '산안드레스 협정'은 자치권과 자원 관할권과 주민권을 약속했던 반면에, '알맹이가 빠진' 법에서는 원주민 마을이 기존의 정부조직에 종속되고, 모든 자치활동은 주정부의 주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주민이 자원을 사용하고 소유하는 권리는 자원 채취에 관한 국가법에 종속되었다. 한마디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킹스노스 2004,33) 물론 이 협정과 법안은 원주민과 농민들이 마을공동체 자치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고, 자신들만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원주민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법안의 재정과정은 원주민 및 농민공동체의 토지, 정치체제 등에 대한 통치권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연방·주정부의 다양한 회유책 아래에서 원주민 공동체들이 정치적, 사회문화적 자율성을 얻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인 가를 잘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2. 인구문제와농촌 공동화(空洞化)

토지문제와 더불어 UCIR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문제는 농촌인구의 감소다. 특히 젊은이들이 지역도시로 혹은 대도시로 떠나가고 있었다. 예로 원주민대학을 추구하였던 농업교육센터는 3년 전에 문을 닫

았다. 농업교육센터를 고등학교로 인가하여 개교하고 있는 작업을 맡고 있는 마리스타(The Marista) 수도사의 말(2007/4/20 인터뷰)에서 산악지대 농촌인구의 변화양상이 잘 드러난다. 즉, "UCIRI가 처음에는 정규 교육과정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UCIRI는 젊은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농촌을 떠나는 것을 우려하여 정식 고등학교로 문을 여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농업기술을 주로 가르치는 1년 과정의 농업교육센터로 만들어 자신들이 운영하였다. 그러나 입학하는 학생들이 적어지면서 3년 전에 폐교하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마리스타 수도회) 위탁하여 고등학교를 내년쯤에 다시 개교할 예정이다. 이번 방학에 UCIRI가 추천하는 학생 3명을 멕시코 마리스타대학에 보내 교사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UCIRI가 농민교육센터를 통해 지역 농촌공동체의 주역으로 키우고자 했던 젊은이들은 그 바람과는 달리 농촌을 떠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민교육센터 출신들의 절반은 커피생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절반은 도시 및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교육을 위해 인근도시로 나가고 있다. 연구자는 일요일 아침에 UCIRI가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라치비사에 위치한 UCIRI의 본부를 방문하였다. 익스테펙에서 산악지대로 들어갈 때는 버스 안이 익스테펙 시장에서 생필품, 농기구, 병아리 등 물건을 사고 돌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오후 4시 라치비사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올 때 버스는 익스테펙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만원(滿員)이었다. 이처럼 산악지대 농촌사람들은 이제 산악지대를 나와 평지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UCIRI의 회원들도 도시로 이주가 많아지고 있다. '원조가 아닌 공정한 거래'라는 공정무역의 기본 정신을 제공하고 UCIRI의 2대 조합장을 역임한 이사이아스도 이제는 커피농사를 접고 익스떼펙에서 생활을 하

고 있다. 그는 7년 전에 커피가격이 급락하면서 커피 생산을 그만두고, 자식교육 등을 이유로 익스떼뻭으로 이주해 와서 돼지를 사육하며 살고 있다. 현재에도 UCIRI의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커피농사를 다시 지을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육, 일자리 등을 찾아 익스떼뻭, 오아하까, 뿌에블라(멕시코 대표적 산업도시), 멕시코시티 등 멕시코내의 도시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증가하면서 UCIRI의 터전인 농촌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를 위해 UCIRI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커피 수입을 보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산업생산형태로 산업화에 적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UCIRI는 우선적으로 여성노동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의류공장을 익스떼뻭에 세웠다. 그러나 이것이 농촌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해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고민거리이다. 이 가능성은 다음의 사례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 사뽀테크출신의 율리타 크루즈 고메즈는 이 공장(UCIRI 익스떼뻭 의류공장)에 일자리를 얻은 여자 중 한명이다.... 그녀는 의류 공장 일자리 때문에 산에서 익스떼뻭 시로 이사했다. 율리타는 아들이 셋 있다. 그 중 한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으며 다른 두 아들은 익스떼뻭으로 데리고 왔다. 율리타는 도시 외곽에 식구들을 위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었다. "돈이 없어 마분지로 지은 보잘 것 없는 집입니다. 저축을 하면 곧 철로 지은 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율리타는 도시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일이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우리들 대부분은 흙으로 지은 집에 사는데 익숙한 산악지대 출신입니다. 전깃불이며 상수도도 없습니다. 물을 구하려면 우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익스떼뻭에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어두워지면 전기 스위치를 켭니다. 물은 수도꼭지에서 그냥 나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율리타는 전깃불과 수돗물보다 공장의 일

> 자리가 제공해주는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기 익스떼빽에서 일과 안정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위험이 덜해요. 산에서 병이 나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산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해요. 우박이 쏟아지거나 가뭄이 들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잃게 됩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습니다"(반 데어 호프/로전 2004, 205-207).

율리타와 아들들이 산악지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농업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공정무역이 UCIRI 회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커피가격 폭락 쇼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실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무역의 힘은 커피시장에서 미약하여 농민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사실 UCIRI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커피 외에 과일 잼 등과 같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상품 또한 커피처럼 서구소비시장이 원하는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 즉, "공정무역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공정무역은 빠르게 서구시장주의에 편입됐다. 나아가 공정무역이 보호하려던 멕시코적인 것, 네팔적인 것, 인도적인 것 혹은 볼리비아적인 가치들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공정무역의 성공이 공정무역의 기반을 허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공정무역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살려내고 공존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는지 모른다." (박수진 2007,26 참조) 이처럼 공정무역을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무엇보다 이사이아스처럼 많은 농민들이 커피 등의 농사를 접고 농촌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촌의 언어, 풍속, 문화도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3. 그들만의 조합, UCIRI.

라치기리의 UCIRI 본부에서 감독위원회 위원장를 만나기 전에 연구자는 마을을 구경하다가 마을 이장 띠또 아길라르(Tito Aguilar, 인터뷰 2007.4. 22.)를 만났다. 자신은 건축일(albañil)을 하는데, UCIRI가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본부를 건설하는데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마을 사람 모두가 UCIRI를 반겼고, UCIRI도 마을 주민, 특히 커피생산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돈을 벌면서 UCIRI도 점차 꼬요떼처럼 변화하였고, 그들만을 위한 조합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UCIRI의 폐쇄성에 대해서는 프란스 신부도 일정정도 동의를 하였고, 자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린 조직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였다(인터뷰 2007/4/23).사실 UCIRI도 공정거래를 행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역업체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 이윤창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로 인해 조직이 점차 폐쇄적이 되고, 이윤이 점차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은 UCIRI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로 공정무역의 주요국가 중의 하나인 네팔의 공정무역에 대한 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정무역의 최대 수혜자는 네팔의 노동자들이 아닌 공정무역업체들이다. 마하구티·마누시 같은 공정무역 업체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비영리·비정부 기구'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영리기구라고 하기엔 이들 조직은 사장-노동자 사이의 위계질서가 확연했고, 일하는 사람은 자신을 '고용된 이'라고 생각했다. 마누시가 밝힌 직원들의 급여는 의료수당 100루피, 교통비 750루피 등을 포함해 3150루피부터 5천루피까지지만, 사장인 파드마사나 샤키아의 월 급여는 2만1600루피였다"(박수진 2007a, 27). 물론 네팔의 상황이 그대로 UCIRI에도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UCIRI가 농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이익의 실현에 중심을 두면서 조합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자치적이고 사회문화적 가치가 실현

되는 농촌공동체의 이상은 점차 부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UCIR의 미래는 바로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Ⅴ. 나가며

걸으면서 길을 만든다! (Caminandose hace el camino)

우리는 세계화 시대, 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착취, 억압, 불평등, 양극화 등 모든 현상의 원인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찾으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공고화되면 될 수록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목소리도 커져왔다. 물론 이 목소리는 하나로 통일되기보다는 각기 다른 지향점과 실천양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UCIR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강화된 다국적기업의 불공정한 착취구조에 맞선 공정무역운동의 산물이다. 오래 전부터 대표적인 환금작물로 다국적기업의 불공정무역과 독점의 상징이었던 커피를 통한 공정무역운동이 오아하까 남부의 농민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UCIR는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났던 무력적 저항과 항의를 대신하여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점진적 개혁을 통한 변화를 선택하였다. 사실 멕시코의 역사는 직접적인 정치적 대립이 권력자들의 더 강력한 무력적 탄압을 야기하며 더 많은 희생과 절망을 가져온다고 가르쳐왔다. UCIR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립이 아닌 '시장 외부의 시장'이라는 새로운 제도

의 제안과 창출을 통해 자신들의 기반을 넓혀왔다. 그리고 UCIRL는 단순한 생산자조합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사회운동을 향해가고 있다. 즉,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자원의 독점적 착취체제에 저항하여 자원, 재화,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원천인 권력을 재분배하여 새로운 지역사회 참여민주주의를 창출하며 다양한 사회문화와 차이가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그 길은 멀고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모토처럼 걸으면서 길을 만들고 있다.

참고문헌

강상구(2006),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서울: 문화과학사.

김용민(2006),"멕시코의 신자유주의와 민주화: 역사적 경험과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관한 성찰", 이상환·김용민 외,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pp.9－28.

랜섬 데이비드(RansomDavid),장윤정 역(2007), 공정한 무역, 가능한 일인가? 서울: 이후.

박수진(2007a),"공정무역은 아직도 배고프다",「한겨레21」, 제 674호, pp.22－27.

_____(2007b),"신뢰구축에서 대중화로",「한겨레21」, 제 674호, p28.

_____(2007),"감동으로 돌파하라",「한겨레21」, 제 674호, pp.30－32.

백승욱(2006), 자본주의 역사 강의 , 서울: 그린비.

심광현(2003), 문화사회와 문화정치 , 서울: 문화과학사.

이은정(2006),"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적 위기: 금융위기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확산", 이상환·김용민 외,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pp.161-195.

판 데어 호프 프란스니코 로전(2004), 희망을 거래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무역회사 막스 하벌라르 , 서울: 서해문집.

킹스노스 폴(KingsnorthPaul),김정하 역(2004), 세계화와 싸운다 , 서울: 창비.

HuberEvelyneFred Solt(2004)"Successsand Failuresof Neoliberalism", Latin AmericanResearchReview Vol.39,No.3,pp.150-164.

Rubin,Jeffry(2004)"Meaningsand Mobilizations:A CulturalPolitics Approach to Social Movements and State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Vol.39,No.2,pp.106-142.

Walton Michael(2004)"Neoliberalismin Latin America:Good,Bad or Incomplet?", Latin American ResearchReview Vol.39,No.3,pp.165-183.

Weyland, Kurt(2004), "Assessing Latin American Neoliberalism: Introduction to a Debate",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39, No.3, pp.143-149.

▌논문투고일자 2008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자 2008년 6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6월 10일